



여러분의 몫입니다.

초콜릿과 정의의 전통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달콤한 초콜릿과 과자들을 즐겨 먹게 됩니다. 매년 먹던 과자나 초콜릿이든 처음 맛보는 것이든 크리스마스 시즌에 달콤한 과자와 초콜릿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유산이며 전통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해 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지만 초콜릿이나 과자들의 주원료인 코코아의 생산 및 공급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아 산업은 강제노동, 인신매매, 어린이 노동력 착취가 만연한 산업입니다. 이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차년 대회의 워싱턴에서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허쉬(Hershey)에서 열릴 2012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동북부 지역회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이미 "기준을 강화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미국시장의 42.7%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내 최고 인기 브랜드 허쉬사에 그들의 제품에 사용하는 코코아의 생산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쉬사도 이미 2001년 이래 코코아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쉬사에 그들의 모든 생산 및 공급망에 공정무역 정책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허쉬사의 홍보담당 부사장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지난 9월 뉴욕을 방문 중이던 홍보담당 부사장은 여성국 부총무인 이성옥 전도사를 직접 방문하여 허쉬사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재투자하기 위한 몇몇 프로젝트들을 허쉬사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허쉬사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허쉬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쉬사는 창업자인 밀톤 허쉬와 그가 백년 전 남동부 펜실베니아 농지에 세운 기업도시의 유산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쉬사의 웹사이트에는 “다른 ‘기업도시들’과는 다르게, 허쉬사는 지역 거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쉬사는 물론 다른 제과 회사들에게 밀톤 허쉬의 진보적 전통에 응답하여 그들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어린이 노동을 종식시키고, 그에 맞춰 그들의 노동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허쉬사의 또 하나의 전통은 과거 고급 제품으로 여겨졌던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돌보는 허쉬사의 진보적 전통보다 중요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허쉬사에 편지나 엽서 또는 이메일을 보내 허쉬사의 직원이든 생산 및 공급망의 노동자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동네 상점이나 우편 주문 또는 온라인 아웃렛에서 공정무역 상품들을 찾아 보십시오.

행동과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선”을 나누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 나갑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